

# 1980년대 한국문화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

## 민중의 시대

박선영 외 지음, 박종우 옮김



“1980년대는 이례적인 시대가 아니다. 쇠퇴해버린 사회운동의 시대, 세계화와 무관하고 현대인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시대도 아니다. ‘민중의 시대’는 한반도에 민주적인 문화와 사회를 꽃피운 정치적·문화적 에너지로 넘쳐나던 시대다.”(박선영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1980년대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싹을 틔우고, 6월 항쟁으로 열매를 맺은 ‘민주화의 시대’로 기억된다. 광주 옛 도청 앞에서 열린 이한열 장례 인파.

“1980년대는 그 당시만의 상황과 이전 시기의 역사적 발전을 함께 보여 주는 풍성한 문화·사회적 태피스트리(Tapestry·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다.”(황경문 호주국립대 교수)

광주민주화운동, 국가보안법,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 민중미술, 6월 항쟁, 박종철, 이한열, 임수경, 박노해... ‘1980년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박선영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들어가며’에서 “오늘날 1980년대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것은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대중 하나에 대한 새로운 주제, 주제성, 이론적 관점의 제공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시기에 관한 학술연구가 정치적 변동과 해방의 서사에 집중되면서 당대의 복잡하고 모순된 모습을 살피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민중의 시대’는 12편의 논문으로 살펴본 1980년대의 자화상이다. 2013년 11월 성균관대에서 열린 ‘아래로부터의 글쓰기’ 학회에서 구상돼 한국과 미국, 호주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의 4년에 걸친 학회활동과 공동 연구 끝에 영문판 논문집으로 결실을 맺었다.

다. 김재용 원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반제국주의적 초근대로서의 1980년대’ 글을 통해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1980년대 초반 광주항쟁을 계기로 미국의 마법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소련의 붕괴로 사이버 진보의 미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 한국은 제국주의적 근대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시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적인 기존의 시각을 넘어 민중가요를 대중음악의 일부로 새롭게 보자고 강조한다. 저질 상업영화라 폄하해온 예로 방화 또한 1980년대의 대중문화 산물이다. 이윤 중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 연구원은 “진보적이었던 퇴행적이었던 1980년대의 예로방화는 압축 근대화를 겪은 한국인의 감성구조를 반영했다”면서 “계급, 젠더, 인종이 교차하는 국내외의 문화정치 속에서 진보와 퇴행 사이를 진동했던 장르”로 재정의한다.

이슬 뉴욕주립대 교수는 1980년대 ‘민중미술’에 대해 살핀다. 1986-1989년 도쿄와 뉴욕, 평양에서 열린 민중미술 전시회를 되짚어보는 내용은 생경하다. 전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980-90년대 노동자문화와 노동자 문학을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1976년 ‘공장의 불빛’ (석정남)과 1978년 ‘어느 돌맹이의 외침’ (유동우),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 (박노해) 등과 같이 “노동자 글쓰기의 본질은 무명인 개개인들의 집합적인 문화실현이며 그 효과로 생성된 문화의 전면 재배치이자 압·혁명적 잠재성이다”고 말한다.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는 “대중음악사의 맥락에서 본 민중가요”를 통해 민중가요와 대중음악에 대한 이분법

요즘 영화 ‘서울의 봄’ (감독 김성수) 관객 500만명 흥행의 여파로 1979년에서 1980년으로 넘어가는 정치사회적 격동의 시기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간 ‘민중의 시대’는 기존의 ‘격변과 해방의 서사’나 ‘민중지식인’ 중심이 아닌 노동자와 여성, 시민, 비주류 예술가의 눈으로 1980년대 한국 문화사를 새롭게 바라본다. 1980년대에 질풍노도의 청년기를 보낸 ‘386세대’가 이제 ‘586’이 돼버린 현재, 이 책은 독자들에게 1980년대 한국문화라는 ‘숲’과 ‘나무’를 새롭고,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창(窓)을 제공한다. <빨간소금·2만3000원>/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전자적 숲: 더 멀리 도망치기=문학과 지성사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플라보란 앤솔러지. 피로와 우울이 가득한 경쟁 속에서 인류는 ‘과잉 하이테크의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도피한다. 하나의 방편으로 정신 건강을 위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이를 이용하면서 ‘전자적 숲’에 빠져 인류는 휴식을 취한다. 명상과 요가, ASMR 등 정제된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6편의 시, 7편의 소설로 보여준다. <문학과지성사·1만7000원>

▲불=결핍과 욕망으로 뒤엉킨 연인들이 결국 ‘파국’을 맞이하는 프랑스 문단의 비극적 수작. 사회과학 교수인 로르는 반년 뒤 열리는 심포지엄 발언자로 초청하기 위해 은행가의 클레망을 만난다. 얽은 피부에 불거진 혈관까지 그녀는 가느란 외형을 지녔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현대의 쟁점들을 날카롭게 짚는다. 서로를 욕망하는 로르와 클레망의 연애담은 금지된 사랑, 세대담론, 학대받은 유년기와 상처 등을 아우르면서 ‘불’ 같은 사랑의 파괴적인 모습을 그린다. <비채·1만7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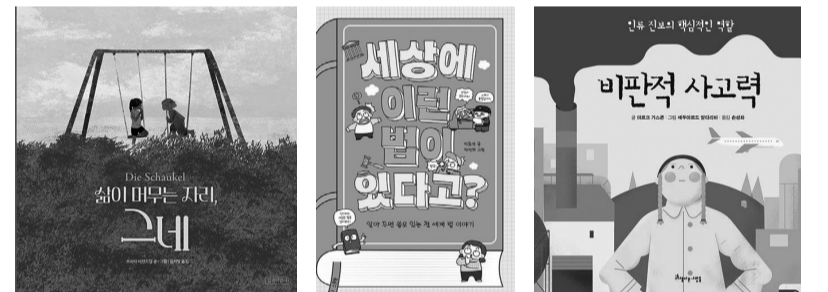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서=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작위와 작위, 불규칙과 규칙을 총체로 한 ‘복잡계’다. 정반합의 체계로 구축된 세계의 변증법적 논리도, 상호 규칙성으로 맞물려 있는 ‘합리’적인 세계도 모두 진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한다. 원자에서 행성까지 모든 물



리계의 상호작용부터 스핀 유리를 분리하는 복제기법 아이디어를 탄생시켰던 일화 등, 다양한 과학적 논점을 살펴보면서 ‘무질서’가 낳는 ‘질서’의 한 단면을 고찰한다. <사이언스북스·1만6900원>

▲DMZ의 역사=한국전쟁의 유산인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DMZ)의 탄생은 불가피했지만 우리 민족의 상흔으로 남아 있다. 1950년 11월 중국이 참전한 뒤 영국이 비무장지대를 구상했고, 동년 12월 미국이 휴전을 모색하면서 영국과 인도가 비무장지대 안을 제안했다. 이후 군사정 전위원회의 통제 하에 정전협정이 이행되어 온 양상과 그 균열을 들여다본다. <돌베개·2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삶이 머무는 자리, 그네=드넓은 바다가 펼쳐진 자리에 빨간 그네 하나가 놓여 있다. 이곳에서 그네를 타는 아이들은 바다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행복하다.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는 등 유년 시절의 추억이 모두 깃들어 있다. 아이는 어느덧 성장해 어른이 됐다. 자신의 아이와 손을 잡고 기억을 머금은 그네 앞으로 향해 추억을 풀어낸다. <갈벗어린이·2만3000원>

이, 낙타를 만나면 양보해야만 하는 아랍 에미리트의 낙타 양보법 등. 기상천외하지만 저마다의 문화권의 개성이 담겨 있는 ‘법’ 이야기를 둘러본다. <스픈북·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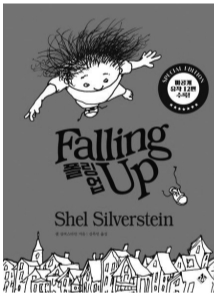
▲비판적 사고력=초등 국어, 도덕, 사회 교과서 단원과 연계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조직에서 가장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은 수많은 성취를 만들어 왔다. 인류 진보는 물론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비판 능력을 리본 브라더스 사간, 그레타 툰베리 등을 통해 이야기한다. <아름다운사람들·1만9800원>

▲세상에 이런 법이 있다고?=알아 두면 쓸모 있을 전 세계의 법 이야기. 거리에서 데에도 필수적인 비판 능력을 리본 브라더스 사간, 그레타 툰베리 등을 통해 이야기한다. <아름다운사람들·1만9800원>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자가 시와 그림으로 전하는 상상의 세계

## 폴링업

셀 실버스타인 지음, 김목인 옮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나의 라이온엔지니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동화책이 없을까. 아이 때 읽어도 좋지만, 어른이 돼 다시 읽어도 마음이 몽클레지고 마는 그런 책으로.

특히 사랑하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행복했다’ 말하는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아름다운 그림체와 함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천만 부 이상 팔린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저자 셀 실버스타인의

책 ‘폴링업(Falling Up)’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다. 저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남긴 작품인 ‘폴링업’에는 인간의 삶과 현대 문명의 다양한 모습을 영동하고 기발한 시각으로 재해석한 글과 그림 156편이 실려 있다. 저자는 재미있는 말놀이를 연상시키는 시와 그림을 직접 쓰고 그렸다.

1996년 미국 유명 출판사 하퍼콜린스에서 초판이 출간된 후 그 인기에 힘입어 2015년 열두 편의 미국계 유망작이 담긴 특별판이 새롭게 출간됐고 이번에 국내에서 번역본이 나왔다.

‘위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담은 제목 ‘폴링업(Falling Up)’은 평범한 생각을 뒤집고 비트는 이 책의 정신을 잘 담고 있다. 신발 끈을 밟는 바람에 몸의 균형을 잃고 땅이 아닌, ‘하늘 위’로 떨어지버린 어린이의 눈에 보인 세상은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유

분방한 세계를 상상해 보라는 초대장이다. 156편의 글과 그림에는 ‘허위나 가식이 없는 어린이의 순수한 시선’과 ‘깊이 있는 철학자의 날 선 눈빛’이 교차한다. 책을 읽다보면 영롱하고 기발함에 감탄하고, 일상에서 무심결에 지나쳐온 것들에도 한번쯤 눈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 해학과 유머가 넘쳐나는 글과 개성 있는 그림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책에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유쾌한 상황이 등장한다. 8편의 악수를 권하는 문어, 인간 동물원, 명칭한 연필회사, 투덜이 책, 인간 풍선, 춤추는 곰 등이다. 번역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목인은 “책 ‘폴링업’의 세계에서는 말과 노래와 그림의 경계가 녹아 녹듯이 사라진다. 천진난만한 상상과 언어에 대한 애정이 만나면 글쓰기가 이렇게 유쾌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일깨워줍니다”라고 적었다. <지노·2만2000원>/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보증 Q-Mark |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1100 | 01509001 | 휴먼이엔티 주식회사 | 문의 전화 1644-6430 |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